

##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일 상륙... 광주·전남 '초비상'

초속 25m 이상 폭풍·100~300mm 호우 예보  
해안지역 벼 침수·과일 낙과·산사태 피해 우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초강력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서서히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는 5일 밤부터 6일 새벽 태풍의 위력이 '매우 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강한 비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강풍에 의한 안전사고, 낙과 피해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광주·전남도 등은 지난 2일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선조치 후보고'를 지시하고 취약시설 점검 및 조치에 나서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련기사 6면>

4일 정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후부터 6일까지 '힌남노'가 한반도에 접근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초속 15m 이상인 강풍 반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울릉도 등에는 초속 40~60m까지 사상 최강의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며, 6일까지 전국에 100~300mm 이상의 비도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지역은 고흥과 여수지역을 비롯한 해안 지역과 강풍으로 인한 쌀과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북동해안·강원영동·전남서해안 등의 지역은 순간최대풍속은 30~40%, 이외 남부지방과 충청 20~30%, 수도권과 강원영서 15~20%로 예상된다. 힌남노는 하필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에 접근한다. 해수면 높이가 가뜰이나 높는데 힌남노가 해수면을 더 높이고 힌남노 경로 인근으로 높이가 최대 10m 높은 물결까지 일면서 5~6일 만조시간대 제주·남해안·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폭풍해일경보가 발령될 수 있겠다

행정안전부는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대응 수위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과거 '루사', '매미'보다 큰 위력으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총력대응을 위해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것이다. 최근 5년간 16건의 태풍 중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상향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은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하고, 산림청은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



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실국장과 22개 시·군 단체인 안전대책추진단을 주재하고 전남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선조치-후보고-예산 지원' 시스템으로 대응할 것을 긴급지시하기도 했다. 기상청이 4일 오후 4시 내놓은 예보를 보면 힌남노는 5일 새벽 3시 대만 타이베이 북동쪽 480km 해상에 이를 예정이다.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hPa)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풍속 초속 4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6일 새벽 제주도를 지나 경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NNOR)'가 매우 강한 세력을 동반한 채 북상하는 4일 오후 여수 국동항에서 어민들이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묶어놓은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여수=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尹대통령 "태풍에 완벽대응을...先조치 後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태풍 '힌남노'와 관련,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 상황과 전망,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클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어선이나 낚시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세밀하고 신속한 대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先)조치 후(後)보고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창문에 'X 테이핑' 대신 창문·창틀 고정을 ▶6면
- KIA, KT에 연패... 멀어지는 4위 18면
- 한국의 서원 - 논산 돈암서원 ▶22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한경, 광주에서 인쇄 시작

한국경제신문이 8월29일자부터 광주에서 인쇄를 시작합니다.  
광주에서도 서울과 똑같은 생생한 뉴스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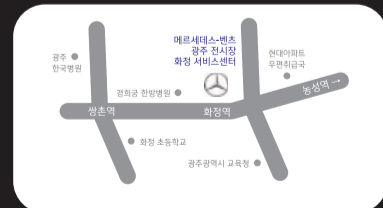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QB**

This is for new dimension.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행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동대로 1041(옥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4.1( 도심: 4.4, 고속도로: 3.8) 1회 충전거리(km) : 313, 공차중량(kg) : 2110, 배터리 용량(kWh) : 66.5  
\* 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허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